

장백산천지

제 249 호

2015 년 3 월 10 일

화요일

타이완 등불 축제에서 파룬궁 꽃등을 시장이 칭찬하고 시민이 사랑하다

(밍후이왕 기자 사원 타이완보도)
2015 년 음력설기간 대만 등불 축제가 타이중 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작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19 개 꽃등을 시장은 “정교하다”고 감탄했다. 그 중 6 층집 높이가 되는 ‘법선’은 밤낮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감탄했다. 의원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2015년 2월 28일 저녁 7시 30분, 타이중 시장 린구이룽(林佳龍), 시 의원 청자오룽(曾朝榮), 파룬따파학회 이사장 장진화(張錦華), 중화꽃등 예술학회 이사장 왕선량(翁賢良) 등은 함께 파룬궁수련생의 등불구역(燈區)에 와 불을 켜다.

시장 린구이룽은 “꽃등은 너무 예쁘고 정교하고 훌륭합니다.”라고 감탄하였다. 그는 또 축사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창의가 풍부한 이처럼 많은 꽃등을 공헌하여 옛 도시에 광명이 찬란하게 해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시 의원 청자오룽은 축사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법선’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썬싼런(真善忍)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을 기원합니다.”고 표시하였다.

중화꽃등 예술학회 이사장 왕선량은 회견 시 꽃등은 아주 복잡한 공예로서 일반적인 사람은 쉽게 이처럼 큰 ‘법선’을 실험 제작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꼭 비범한 천재와 사심이 없이 공헌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꽃등들이 명년 타이베이 꽃박람



6 층 높이 되는 꽃등 ‘법선’이 사람의 주목을 끌다 (사진은 일경임)

회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그 장소는 아주 크고 이런 것이 아주 수요된다고 했다.

꽃등 ‘법선’은 길이 25m, 넓이 8m, 높이 18m이다. 연등회가 열리기 전, 부근의 시민과 학생들이 특별히 찾아와 구경하고 촬영했다. 점등 의식 날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지어 ‘법선’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왜 이 배에 올라 갈수 있다! 어떻게 당해 낼 수 있을까? 무슨 재료를 썼을까? 올라가 보자.”라고 감탄해 말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28 일 저녁에만 2000여명이 ‘법선’에 올라 체험했다고 한다.

타이중에 거주하고 있는 라이(賴)여사는 소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법선’에 올랐다. 그는 “아

주 장관입니다. 저는 탈수 있는 꽃등을 처음 봅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위에서 아래의 꽃등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특별합니다.”라고 말했다.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타오위안(桃園)에서 온 귀 선생은 “이처럼 큰 꽃배를 종래로 본적 없습니다. 위에서 있으니 마치 ‘천하를 통치하고 있는’기분입니다.”라고 말했다. 후 선생은 파룬궁수련생의 꽃등 ‘신구천차(神駒天車)’도 아주 예쁘고 종래로 본적 없다고 했다 그는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아야 했고, 중공은 무신론을 선전해 사람이 악의 일면을 방종하게 했으며, 민중은 응당 신앙이 있어야 하고 신을 믿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

해외 목소리

파룬궁 박해에 대한 전형적인 평가

매우 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정요들은 파룬궁수련생의 반박에 매우 큰 지지를 주었다. 아래의 두 단락은 그들이 파룬궁 박해에 대한 전형적인 평가이다.



미국(新澤西州) 국회의원(克里斯托夫·史密斯)는 말했다 :

어떠한 정권이 조용히 앉아 진리와 강을 찾는 파룬궁수련생을 이렇게도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는가?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지난 20년래 가장 수치스러운 사실이다. 그런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은 반드시 법률의 징벌을 받아야 하며 그들은 죄책을 벗어나기 어렵다.



“자유의 집” 전 세계 항목 부회장(克洛伊·施文克)는 말했다 :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 안건은 이미 미국정부에 기록되어 있고 전세계 여러 인권조직에 기록되어 있다. 전세계는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그런 흉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 존엄을 짓밟는 것을 멈추고 인류의 기본 권리를 짓밟는 것을 멈출 것을 호소한다.

중국 대륙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박해진상 (일부분 사례)

【잉후이왕】 황규희(남, 조선족, 69 세,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 왕청가도사람) 예전에는 왕청 립업국 고중 수학 교사였다. 2004 년 5 월 13 일, 황규희와 아내는 연길시 북산 파출소 악경에게 납치되어 불법으로 1 년 노동교양을 받고 구태 인마허 노동교양소에서 엄중한 박해를 받았다.

황규희는 노동교양소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금방 노동교양소에 도착하자 사악한 경찰들은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했는데 쓰지 않으니 7, 8 명의 신체가 건강하고 힘 있는 젊은 감옥 경찰들이 달려들어 황규희의 두 팔을 몸 뒤로 묶은 후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혹독하게 때렸다. 사악한 경찰들은 옛새 동안 밤낮으로 황규희를 못 자게 하고 매일 반 냇이 조금 넘는 옥수수 떡 4 개만 주었다.

구태 노동교양소의 사악한 경찰들은 또 강제로 황규희에게 하루에 18 시간 (새벽 4 시부터 밤 10 시까지) 쪽 걸상에 앉아있게 했는데 만약 다리라도 조금 움직이면 피박하여 각서를 쓰게 했다. 어떤 사람은 쓰지 않아 맞아 죽었다. 황규희는 이렇게 6 개월 동안이나 쪽 걸상에 앉아있는 박해를 받아 엉덩이가 썩어 바지도 고름에 말라 붙어 벗을 수가 없었다. 사당(邪党) 악인들은 또 담뱃불로 황규희를 지지기도 했다. 이 기간 사악한 경찰들은 4, 5 번이나 황규희한테 독수를 뺨치려 했다. 구태 노동교양소에 있는 동안 저녁 10 시가 되면 침실관리를 책임진 자가 문을 잠그고 견정한 대법제자들에게 대해 고문을 가했다.

8 월 말 어느 하루, 황규희는 술에 취한 두 명 사악한 경찰에 불러갔다. 당시 황규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더욱 확고하게 정념을 가졌다. 악인들은 황규희를 5 층의 밀실로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바로 피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양쪽 벽에는 각종 흉기가 걸려있었으며, 땅에는 핏자국 천지였다. 황규희는 악당들의 비열한 수단을 한눈에 간파하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너희들도 사람인가?” “너희들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우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사악한 경찰이 그를 벽 가까이에 앉으라고 했지만 황규희는 그들의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 두 악인이 잠이 들어 황규희는 재난에서 벗어 날수 있었다, 황규희가 복도에 나타나자 복도를 지키던 놈이 깜짝 놀라 “당신은 사람인가, 귀신인가?”라고 외쳤다. 황규희가 “당연히 사람이지, 왜 그렇게 묻는가?”라고 하자 복도 지킴이는 창백한 얼굴에 부들부들 떨면서 “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하나도 살아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원래 노동교양소에서 살인 할 때면 이 밀실로 보내는데 모두 술에 취한 악인들이 파룬궁수련생을 이 밀실로 데려왔던 것이다.

9 월말의 어느 날, 그 두 하수인이 또 술에 취해서 황규희를 불러냈다, 그 중 한 악인은 황규희가 배합하지 않자 그를 강제로 복도에까지 밀어냈다. 복도에 와보니, 다른 한 사악한 경찰이 물에 폭 젖은 솜옷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아직도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5 층에 오자 황규희는 “솜옷을 젖힌 이유가 뭐요? 날 넘어뜨린 후 이



잔혹한 박해로 사망했거나, 참혹한고문혹형을 받은 일부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의 사진.

솜옷으로 나를 질식시켜 죽이려는 거지요?” 라고 그들의 음모를 밝아 놓으면서 한편으로 솜옷을 빼앗아 하수인을 향해 뿌렸다. 솜옷을 뒤집어 쓴 하수인은 벗어나려고 한참 허우적거리어야 겨우 벗어났는데 몸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한참 생사의 힘겨루기를 하다가 악인들은 견정한 파룬궁수련생 앞에서 물러서고 말했다.

11 월의 어느 날, 그 두 하수인은 또 황규희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뭔가 주의깊게 배치를 한 것 같았고 말하는 것조차 모두 암호를 썼다. 그들은 ‘강택민이 3 개월 내에 파룬궁을 없애라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곳에서 이미 완고한 파룬궁을 수천 명이나 죽였다, 너를 때려죽인 다음 골회를 버리면 그뿐이야’라고 협박했다. 밀쳐서 복도까지 나오자 과장 정(음)모와 감옥경찰 손모가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 층까지 온 후 황규희를 밀실에 밀어 넣고 두 하수인도 따라 들어오더니 문을 광 하고 닫았다.

이번에도 황규희를 벽 가까이에 앉으라고 했다. 말을 듣지 않자 한 하수인이 노인을 안아서 벽 끝에 들어다 놓았지만 황규희는 다시 일어섰다. 다시 한 번 안아서 벽 끝에 놓자 순간 다른 한 하수인이 침대 위층의 고정 대를 두 손으로 쥐고는 두 발로 벽 끝에 있는 황

규희를 향해 힘껏 내리 쳤다. 그렇게 큰 충격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노인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규희의 몸은 앞으로 조금 기우뚱 했을 뿐, 하수인이 오히려 아주 심하게 땅에 떨어져 너무도 아파 연속 소리를 질렀다. 이때 복도에서 동정을 살피던 정씨와 손모가 상황을 보더니 “끝내자 됐어 각서를 안 써도 돼” 라고 말했다.

노동교양소에서는 황규희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줄곧 수갑을 채웠고 체중이 겨우 25 kg 밖에 안 됐다.

감옥에서 돌아온 후 황규희의 신체는 이미 너무나 허약하여 자식들은 노인의 건강이 걱정되어 상해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려고했다. 하지만 상해로 가려는 전날, 황규희와 아내는 또다시 연길시 조양파출소에 납치되었다. 불법으로 40 여 일간 감금당한 후에야 풀려났다.

그때부터 현지 파출소와 주민 위원회의 사당인원들은 소위 민감한 날만 되면 황규희 부부한테 소란을 피웠는데 황규희의 건강은 악화 되어 끝내 2008 년 9 월 25 일 연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